김상현

엔지니어링 관점으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김상현

disclaimer

- 가장 논의할 가치가 큰 협업, 비즈니스 기여 위주로 설명
- 기술적인 측면은 실무 면접에서 확인
- VMS에서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기
- 더 인성적이고 덜 기술적

자기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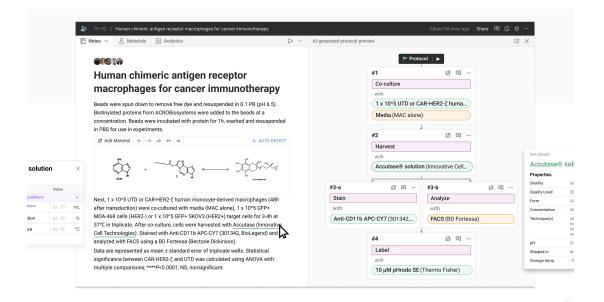
-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엔지니어
- 일상의 작은 문제를 엔지니어링으로 풀어보자

UX/UI 디자이너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도전

- UX/UI 디자이너로 매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도 탐구
-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프로그래밍(자바스크립트)으로 작은 실험과 학습을 해봄
- 6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으면 성향이 잘 맞음

앤트

- 1년 동안 UX/UI 디자이너로 근무
- B2B 전자 연구노트를 웹에서 작성할 수 있 게 하는 제품
- 디자인 시스템으로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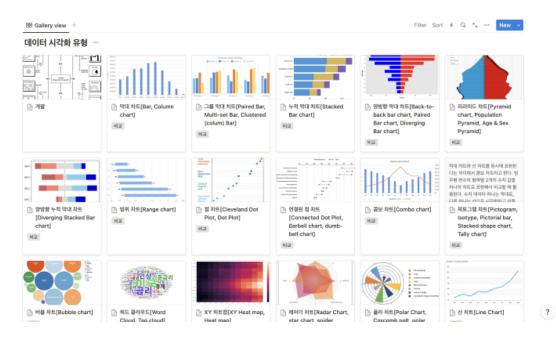


역량

- 핵심 역량
 - UX 지식
 - 정보력(테크 트렌드)
 - 꾸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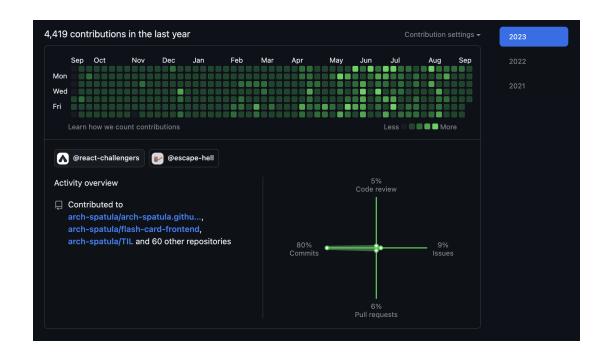
- 부가 역량
 - Figma 툴 활용





역량 - 정보력(테크 트렌드)

- 동료가 말해준 장단점(피드백)
- 장점: 영어권 자료를 자주봐서 최신 기술을 알고 있음
- 단점: 단순하게 생각해도 괜찮은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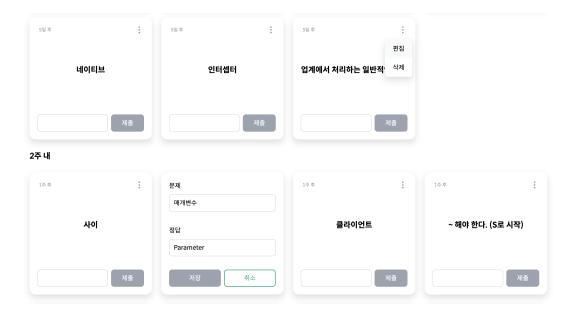
- 커밋자체는 매일합니다.
- 1일 1커밋 무사고 285일
- 프로그래밍하기 어려운 날은 정말 작게 지식 을 정리합니다.

프로젝트 수행 경력

- 플래시 카드
- Codefolio

플래시 카드

- BaaS를 사용하지 않고 풀스택으로 개발
- 개인적으로 영단어 학습을 위해 만든 제품
-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을 혼자서 진행



프로젝트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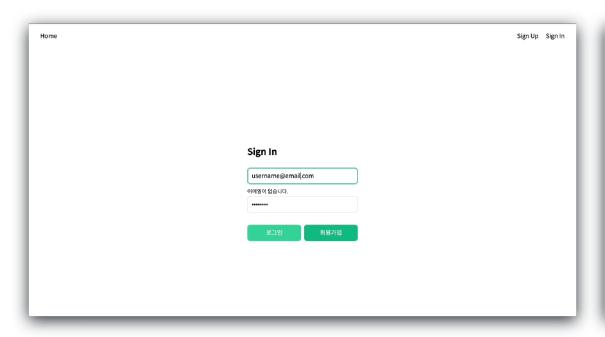
- 영단어 어휘력이 약함
 - 영타가 느림
 - 영단어 검색을 자주함
- 플래시카드로 암기가 효율이 제일 좋음
-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를 사용하면 광고가 너무 많음
- 무료는 성능 문제도 너무 많음
- 대부분 서비스는 실제로 원하는 단어 입력을 못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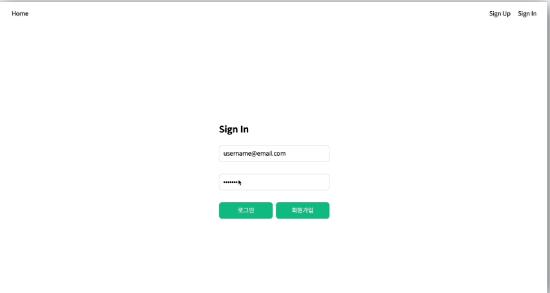
프로젝트 진행 중 어려웠던 점

- 백엔드는 최대한 작고 간단하게 구축
- 프론트엔드는 대부분 익숙한 기술 활용
-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의 협업

역량 발휘

- 성능 말고 유저가 이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
- Request Waterfall 방지
- ErrorBoundary로 요청 실패 예외처리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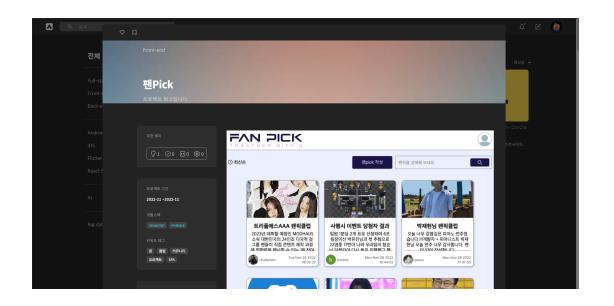


프로젝트 성과

- 매일 영단어 암기를 광고와 성능 저하 없이 이용 가능
- 완전한 재량을 갖은 프로젝트로 강조하고 싶은 경험 추가 가능
 - 최근에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 중
- 백엔드 지식이 쌓임

Codefolio

부트캠프 수강생들이 작업한 프로젝트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여 채용과 연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공유 서비스



배경

- 교육과정에서 토이프로젝트를 만들고 끝내는 부분이 아쉬움
- 개발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없음
- 교육과정 마지막에 만드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
 - 디자이너 1명, 프론트엔드 5명
 - 기여도 20% (커밋, PR)
 - 대부분 유저 프로필 페이지 담당

어려웠던 점1

- 급했을 때 구두만 작업 분배
- 작업 중간에 모두 확인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음
- 일단은 저의 양보(git conflict 만든 분이 git 활용을 잘 못함)

어려웠던 점 2

- 디자이너의 마감
- 교육과정 포트폴리오는 디자이너를 배정받음
- 2주차에 대부분 작업을 받아야 하지만 4주차 중간에 받음
 - 프로젝트 기간은 총 5주

프로젝트 성과

학습

- 좋은 코드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함
- 코드 작성량이 많은 코드베이스에는 장기적으로 테스트 코드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음
- 리팩토링, 테스트, 디자인패턴, 함수형 프로그래밍

지원동기

- 보유한 제품을 탐색하기 어려움
- 생산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정보 관여도가 높음
- i. 고객 래퍼런스
- ii. 공개용 데모

입사 후 포부

- Smart APS의 공개용 웹 데모를 개발
- Smart APS를 조사하는 과정이 어려움
- 고객의 영업 문의 지표를 높이기 위해

감사합니다.

FAQ

• 자주 받은 질문

- Q: UX/UI 디자이너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전향한 계기
- 심미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엔지니어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더 재미있었음
- 매체를 이해하기 위해 웹을 이해하다가 작은 스크립트를 작성함
- 6개월 이상 심취할 수 있으면 성향에 잘 맞다고 판단

- IT,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?
- 대학생 시절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한 선배님이 창업함
- 저는 기술적인 IT,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짐
 - 유튜브 채널 EO를 자주 챙겨봤음
- 선배님은 소셜 창업을 함
- 저는 동아리에서 디자인 관련 작업을 많이해서 UX/UI 디자이너로 커리어 시작을 결정

- 커리어 목표?
- 좋은 동료들 사이 인정 받으면서 프로그래밍을 즐겁게 하는 것
- VMS에서 동료와 함께 생산관리를 위한 어드민, 솔루션 장인되기

감사합니다.